

작품 내용

제 목	출처없음
내 용	어느 날, 나의 이름이 사라졌다. 신기하게도 세상은 달라진 것 하나 없이 아침을 맞이했고, 그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. 나의 그림은 여전히 인터넷을 떠돌아다녔다. 사람들은 그림을 감상하며 웃고, 공유하느라 바빴다. 하지만 중요한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. 내 이름 세 글자. 사람들이 보고 간 그 자리에는 작품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. 처음에는 괜찮았다. 그저 내가 그린 그림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당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좋을 뿐이었다.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춰 내 그림을 감상했고, 내 작품을 칭찬하는 댓글들도 보이기 시작했다. “그림이 예뻐요!” “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.”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. 그 수많은 댓글 속 내 이름은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다. 사람들은 그림을 기억했지만, 나의 이름은 지워져 버린 지 오래였다. 작품 밑에는 늘 한 문구만이 남아 있었다. ‘출처 없음.’ 그 짧은 문구를 보는 나의 마음은 시리다 못해 저려오기까지 했다. 그림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. 이름은 없어졌지만, 계속해서 도화지 위에 나만의 색을 채워나갔다. 그렇게 곳곳이 그리다 보면, 언젠가는 나의 이름도, 작품도 모두 빛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.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. 내 작품 역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다. 하지만 여전히 나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. 작품 작업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. 심심해서 틀어놓은 텔레비전에서는 한 토크쇼가 방송되고 있었다. 평소에도 즐겨보던 프로그램이었다. 진행자는 매주 유명한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앉혀두고 인터뷰를 진행했다. 너무 오래 틀어둔 것 같아 작업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텔레비전을 끄려던 찰나였다. 진행자의 멘트가 내 귀에 꽂혔다. “오늘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그림으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지만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.”

화면에는 내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 차 있었다. 그런데 진행자를 마주보고 앉아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. 정체 모를 한 여자였다.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그 여자는 본인이 그린 그림들이라며 나의 작품들을 소개했다. 눈을 씻고 보아도 나의 그림이었다.

그 프로그램 이후 사람들은 그 낯선 이에게 박수를 보냈고, 나는 그 모든 장면들을 가만히 지켜보았다.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. 내 이름은 잊힌 지 오래였으니까. 내가 내 작품이라고 소리쳐도 믿어주는 사람 하나 없을 테니까.

그림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한 달이 넘게 걸렸다. 사람들은 그림의 아름다움에만 사로잡혀 있었겠지만 그 속에는 나의 땀 흘린 열정이 담겨 있었다. 내가 빼앗긴 것은 단순한 그림 몇 점이 아니었다.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모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.

그 이후로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. 누군가는 그림 몇 점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. 하지만 세상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잃고 있었다. 언젠가 세상에 태어났을지도 모를 또 하나의 작품. 다음 작품을 꿈꿀 용기. 그 용기를 나는 잃어버렸다.

그제야 나는 깨달았다.
저작권은 단순히 작품 끝에 이름을 남겨두기 위한 권리가 아니었다.
창작자가 끝내 자신의 이름을 잃지 않고 또 다른 내일을 그려나갈 수 있게 하는 희망이었다.